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3.11.(금) 10:30, 차덕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2022 통일백서 발간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통일부는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추진 경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990년부터 통일백서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2022 통일백서는 2021년 대북·통일정책 추진 내용들을 정리하여 한반도 정책, 남북 교류 협력, 인도적 협력 등 총 7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기본적인 편제나 분량은 예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이번 통일백서 발간 과정에서는 민간 전문가를 편집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편집위원은 외부 위원 2명과 내부 위원 2명으로 구성하는 등 외부의 의견을 충실히 담아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22 통일백서는 총 1만 부를 발간하여 관계기관과 단체, 전문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부 일정입니다.

오늘 통일부 장차관은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부 내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볼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모두에 준비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사전에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네 건의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과 서해위성발사장을 연이어 방문한 것을 북한의 ICBM 도발 징후와 연계하여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와 역내의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서해위성발사장 방문 등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의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의 노력에 호응하여 대화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복구' → '복귀'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에서 우리 대선 결과를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답변>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 대통령선거 결과를 간략하게 보도하였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은 평균적으로는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 2~3일 내에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년과 유사한 방식으로 관련 보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정찰위성 발사, 북한 선박의 NLL 월선 등 계기에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을 통한 관련 소통이 있었는지요? 이 외에 통신선을 통한 유의미한 소통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남북은 지난해 10월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한 이후 오늘 현재까지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5시에 통신연락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확인하는 통화를 정상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찰위성 발사, 북한 선박 NLL 월선에 대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논의한 바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선 이후 통일부 역할론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일부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구

현하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며 남북 간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속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브리핑을 모두 말씀드렸고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